

# 복음과 진리의 파수꾼 예수님의 동생 유다

## -복음으로 여는 유다서-

사무엘상 15:22-23, 유다서 1:22-25

정운문 목사님

\* **삼상15:22-23**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와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대 하니

\* **유1:22-25**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공화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공화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지, 정, 의를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공화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시며 구원자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사명까지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과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와 후대와 복음을 위해 현장을 위해 생명 걸고 올인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하옵소서. 많은 갈등과 시험과 기도제목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절대미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년 동안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사실 똑같은 날이지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주와 매달과 매년을 주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매일, 매주, 매월, 매년 새로워져야겠다. 새롭게 2024년 도전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란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수록, 부족할수록 더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더 기도하신다. 한 해를 돌이켜보니까 새로운 응답을 많이 받았다. 237, 치유, 서명, 서약의 응답을 어떻게 받을까 생각하며 기도하다가 237을 위해 언어를 준비하고 여행을 다녔다. 여행캠프를 지속하고, 이학연수를 보냈다. 지금도 램넌트들이 이학연수를 가 있다. 뉴질랜드와 호주에 가 있다. 지금 본부의 흐름도 오세아니아 14개국의 문인데 램넌트가 그 14개국의 문을 여시는 목사님의 집으로 갔다. 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진실하게 마음만 먹어도 미리 응답을 주시는 구나를 알게 되었다. 연말에 교회에서 강담회와 핵심예배와 산업선교예배도 하게 되었다. 준비하려던 힘든데, 사실 다 우리 교회가 기도한 내용이다. 사람도 될 시킬 때 잘할 것 같은 사람에게 시킨다. 직장에서도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사람에게 시킨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왜 나에게만 그러냐' 할 게 아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헌신하게 한다. 하나님도 우리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내년에는 더 우리를 신뢰하실 것 같다. 내년에 오세아니아 14개국을 초청하는 K팝공연을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 준비해야 하는데, 이번 본부 핵심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내년의 응답을 미리 보여주셔서 준비하게 하신 것 같다.

말씀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사울 왕은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이었다. 잘생기고 키도 크고 멋졌다. 그러나 사울 왕은 고만하여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강단메시지에 이유 있는 순종과 복종을 하지 않았다. 저도 어릴 때 어머니와 아버지, 교회 안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순종하고 복종했다. 교회에서 미션을 줄 때 불순종부터 하면 안 된다. 목사님의 미션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건 237과 3천 제자를 위해서다. 리더는 계속해서 변화를 꾀야한다. 3천 제자를 위해서는 3부예배, 5부예배를 위한 틀을 만들어야 한다. 미래를 향한 도전을 작게라도 준비해야 한다. AI를 쓰다보면 통번역을 할 때 틀린 부분이 있다. 램넌트들은 영어공부를 안 할 것이 아니라 통번역 AI를 만드는 램넌트가 되어야 한다. 이제 격차가 더욱 벌어진다. 로봇보다 못한 시대가 된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공동체가 필요하다. 성경은 항상 미래와 영원을 이야기한다.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밀 하게 되면 사기를 치게 된다. 기본부터 배울 때 5년, 10년 지나 진짜 응답을 받는다. 기본이 안 되면 허황되게 된다. 다 갖고도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누려지지 않는다. 사울 왕은 다 가지고 있었지만 영적인 문제가 있었니까 다 빼앗겼다. 사울 왕은 조금씩 말씀에서 멀어지더니 결국은 왕위를 다윗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헤롯 왕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나중심, 세상중심, 성공중심으로 살다가 예수님이 오실 것도 알았지만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 교회의 흐름과 목사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서기관, 마리아인, 헤롯 왕처럼 된다. 2024년에는 교회를 살리는 복음적인 제자가 되기 바란다. 초대교회의 성도들 중에도 처음에는 복음으로 시작했지만 세상의 이성과 과학과 자신의 정욕 때문에 말씀과 교회와 복음을 멀리하더니 결국에는 사탄의 울무, 틀,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다. 예수님의 젓동생 유다는 끝까지 복음과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유다서를 기록하였다.

오늘은 예수님의 젓동생 유다가 기록한 유다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오늘 예배는 줄임예배다. 그냥 공부만 하고 자신만을 위해 살려고 하면 안 된다. 줄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말씀중심으로 살아가는 램넌트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오직 말씀 속에 행복이 있다. 예배에 집중하고 기록하고 하면 어디를 가도 성공한다. 이 자리에 있지만 해도 성공한다. '하나님 저는 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기도와 예배만 성공하겠습니다.'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 문을 다 여신다. 걱정하고 염려할 게 없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이나 힘을 바라지 않으신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는 사람의 증거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어느 날 여러분을 통해 교회의 문을 여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과 실력을 원치 않으신다. 여러분의 믿음을 원하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신다.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 중에 두 명이나 복음과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였다. 그 한 사람은 야고보이고, 다른 한 사람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다. 교회와 그리스도와 진리를 지켜야겠다는 마음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다.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세상을 살릴 수 없다. 교회는 더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가야한다. 유다가 처음에는 복음에 대한 내용으로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영지주의와 이원론의 이단사상에 빠져서 교회에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다서 1장 3절을 보겠다.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유다서를 통하여 아주 강한 어조로 영지주의에 빠진 사람들을 비판하고 이러한 문제가 있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전도사역들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미션을 주면서 유다서를 끝내고 있다. 영적으로 싸워야 한다. 유튜브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아주 많다. 어제 영상을 보는데,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과학을 하는 이유가 끝없는 우주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지 알고 연구하기 위해서라고 하시더라. 모르는 걸 믿는 것도 믿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믿는 것도 믿음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축복을 받았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다. 그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창세기 1장을 보고 놀랐다고 한다. 우주의 기본요소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인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 '천, '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에 시간, 공간, 물질이 들어있다. 하나님은 빛으로 모든 물질의 에너지를 만드셨다. 성경은 비과학이 아니라 초과학이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증거해야 한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는 증거해야 한다. 모르면 공부하시고, 현장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쓰임 받으시기 바란다.

**1. 영지주의자들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영지주의자가 뭐냐? 지식이 많고 다 아는 척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육적으로는 타락한 사람들이다. 현대판 영지주의자들이 진화론자, 3단체와 같은 사람들이다. 복음은 이해 못하면서 정치적인 좌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다. 길으로는 화려하게 이야기 하면서 뒷모습은 타락하고 더 악한 사람들이다. 우리 후대들이 그들의 영향력에 속해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1)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라고 기록하고 있다. 진화론, 타락이 가만히 들어온다. 빛의 자식은 낮에 살고 저녁에 자야 하는데, 어두움의 자식들이 많다. 그 흐름을 꺾어야 한다. 우리의 사명이다. 어두움을 꺾고 세상을 빛으로 만드는 것이다. 영적으로 볼 때, 지금도 신천지인들은 교회 안으로 가만히 들어오고 있고, 자신의 신분을 거짓으로 속이면서 접근하고 있다. 제가 새가족이 왔을 때 메시지에서 이만희 욕을 하면 새로 온 새가족이 신천지인지 알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 전에 어떤 청년 한 명이 저한테 전화해서 우리 교회에 등록한다고 했다. 제가 그 주 메시지에서 이만희에 대해 까니까 그 다음부터 오지 않더라. 거짓말과 사기꾼을 알면 흑암은 꺾인다. 복음으로 예방수사를 맞는 게 중요하다. 내 안에 사기성이 있으니까 사기꾼에게 넘어가는 것이다.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허황되고 급하게 뭘 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가 되면 3단체를 능가할 수

있다. 원래 우리 것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다음과 같은 사람이라고 유다는 기록하고 있다. 세상에 한 발만 나가면 모두가 악하고 더럽고 속이다. 세상은 교회와 같지 않다.

(2) 1장 4절에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여"

(3)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4) "홀로 하나이신 주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즉, 성삼위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유다는 유다서 1장 5절부터 7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리와 교회를 방해했던 사람들이 받을 심판들에 대하여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어서 유다서에서는 영지주의자들의 잘못에 대하여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다.

(5) 유다서 1장 8절에 보면 "꿈꾸는 이 사람들도"라고 말씀하고 있다. 즉, 영지주의자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꿈을 의지하는 신비주의자들이었다. 과학자도 엘리트고, 지식인인데 의외로 신비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다.

(6) 유다서 1장 8절에 보면 그들은 "육체를 더럽히며"

(7) "권위를 업신여겼다"고 했다. 사탄과 귀신이 역사하면 목사님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 남편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윗사람들의 권위를 업신여기게 된다. 나의 죄가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갈라놓게 된다고 했다. 내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상대방을 피해 다니게 된다. 그게 창세기 3장이다.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인사를 안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믿음이 있는 성도는 목사님이 멀리 있는데도 인사를 한다.

(8) 또 그런 사람들은 "영광을 비방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 지금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다. 박병 이론을 믿는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비방한다. 공짜로 숨 쉬고, 태양이 10만 Km/h로 날아가고 있는데 우연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만든 건 없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조리했을 뿐이다. 영적으로 성장하면 오히려 감사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 배푸는 모습으로 바뀐다.

(9) 또한 1장 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면서도 비방만 하는 부정적인 사람들이었다. 한분 한분이 현장에서 빛을 발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10) 또한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11) 1장 16절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12) "불만을 토하는 자며"

(13)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14)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15)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세상 사람이 다 이렇다.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모습이 된다. 유다는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아주 심할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다.

(16) 유다서 1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겠다.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라고 했다. 여기서 '애찬'이란 성찬예식과 같은 단어이다. 성찬예식은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애찬의 암초라고 하는 의미는 '구원의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다. 교회는 다니는데 전도와 복음에 방해되는 사람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는 말이다.

(17) 계속해서 1장 12절을 보면, 그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18) "비람에 불러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19)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이 말은 별로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존재라는 말이다.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가 되시기를 바란다.

(20) 1장 13절에 보면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21) "영원히 예비된 김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가치 없고 사라질 존재라는 말이다. 아주 엄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다. 유다는 짧은 유다서 안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앞으로 받을 심판에 대하여 반복해서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그들을 비판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고 교회와 성도와 복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 더 큰 목적인 것이다. 교회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란다. 순천시장이 생태정원을 조성했다고 한다. 일을 하는 직원들이 시장님은 '삼보일배' 하신다고 하더라. 세 걸음마다 계속 지적하고 화낸다. 어떤 일을 할 때 대중하면 안 된다. 한번 지시하고 아홉 번 확인해야 한다. 리더자가 되려면 시키는 것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노예, 포로, 속국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주관적이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게 복음적인 리더자다.

**2. 유다가 성도들에게 준 미션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우리를 또한 유다처럼 교회와 진리를 지키는 복음의 파수꾼과 땅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겠다.

(1)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는 사도 바울과 신약성경의 말씀들을 기억하라는 말씀이다.

(2) 1장 2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3) "성령으로 기도하며"

(4)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라고 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은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 밖에 없다. 그걸 믿어야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여러분 자신을 복음 안에서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5) 1장 21절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새가족들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 훈련받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어느 순간 전도자가 된다.

(6)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처음에는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의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특별히 열심히 훈련받은 권사님들은 남편이 의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뭐라 해서는 안 된다. 더 부드럽게 대해야 한다. 원수까지 선으로 갚아야 한다. 선으로 이기고 복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란다.

(7)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여러 가지 고난과 이단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라는 말이다. 세상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불에서 끌어내는 것과 같다고 한다.

(8)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타락한 현장에서도 조심하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다. 마약중독자들이 위험하지만 조심하면서 구원해내야 한다. 그 행위나 잘못된 것들을 미워해야 하지만 구원해야 한다. 그래야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모든 사역은 주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것이다. 다 함께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읽겠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과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9가지 포인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한다. 초대 교회의 영지주의자들도 이 부분이 부족하여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갔다고 볼 수 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 9가지 포인트는 높이, 깊이, 넓이, 위, 아래, 옆, 과거, 현재, 미래이다.

① '높이'이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모르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 문제가 생기는 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다 팔권이 된다. 믿지 않으면 여러분의 손해가 된다. 절대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란다.

② '깊이'이다. 어떠한 분야든지 그 깊이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겸손하게 오랫동안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 성장하는 사람은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다. 그래야 깊이 이해할 수 있다.

③ '넓이'이다. 깊이만 알면 어떤 편협해질 수 있다. 지금은 다양한 분야를 바르게 알아야 하는 융합시대이다.

④ 다음은 '위'이다. 윗사람에게 이유 있는 순종과 복종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램넌트 7명이 모두 이러한 사람들이었다.

⑤ '아래'이다. 아랫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주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바른 리더와 바른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들을 섬겨 주셨다.

⑥ 다음은 '옆'이다. 옆의 동료들과 친구들과 가족들도 배려하고, 양보하고, 서로 희생하고 동역할 수 있어야 한다. 그때 분열이 아니고 팀의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다.

⑦ '과거'이다. 과거의 역사와 교훈을 참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성경도 과거의 역사가 대부분이다.

⑧ '현재'이다. 현재를 바르게 보고 집중해야 한다. 지금의 문제에 속지 않고 급한 것, 깊은 기도 속에서 급하고 중요한 것부터 해결해 간다면 사탄에게 속지 않을 것이다.

⑨ '미래'이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항상 꿈과 비전을 향해 도전하고 재창조해야 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에 대한 바른 소망을 갖지 못하면, 영지주의자들처럼 세상적인 지식과 육신만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끝으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통하여 복음과 진리와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하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 동안 부족한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램넌트들이 학업의 분야를 마치고 졸업하여 새로운 학교로, 새로운 교육 시스템으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친구와 친사를 동원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